

서승 (徐勝)

1945년, 일본 京都생. 일본 리츠메이칸(立命館)대학 법학부 교수 (비교인권법, 현대한국의 법과정치), 동 코리아연구센터 고문, 야스쿠니반대 동아시아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역임. 동경에서 대학을 나와, 서울대대학원 (사회학과)에 유학 중, 1971년, 투옥되어, 1972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아, 복역. 1990년 석방. 미국 캘리포니아대학(버클리), 2003년 캐나다 빅트리아대학 객원연구원. 대한한국의 법과 정치, 동아시아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 회복 및 화해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.

저서: 『獄中19年』 (岩波新書、1994年)、『現代韓国の民主化と法・政治構造の転換』 (大久保史郎・徐勝編、日本評論社、2003年3月)、『東北アジア時代への提言－戦争の危機を平和構築へ』 (徐勝、松野周二、夏剛編、平凡社、2003年)、『東アジア冷戦と国家テロリズム－米日中心の地域秩序の改変のために』 (お茶の水書房、2004年)、『現代韓国の安全保障と治安法制』 (法律文化社、2006年)、『韓流のうち外－韓国力と東アジアの融合反応』 (お茶の水書房、2008年)、『現代韓国の民主主義の新展開』 (お茶の水書房、2008年)、『北朝鮮が核を放棄する日－朝鮮半島の平和と東アジアの安全保障に向けて－』 (徐勝監修、康宗憲編、晃洋書房、2008年)、『韓米FTAと韓国経済の危機』、(徐勝、李康国編、晃洋書房、2008年12月)、『だれでも故郷はあるものだ』 (社会評論社、2008)、『朝鮮半島の和解・協力10年－金大中・盧武鉉政権の対北朝鮮政策の評価』 (御茶ノ水書房、2009年11月、『徐勝の東アジア平和紀行－韓国、台湾、沖縄をめぐる』 (かもがわ出版、2011年2月)) 등 다수.

한국에서 발표한 글

[전후 일본의 과거 청산과 야스쿠니－‘제사 받지 않을 자유’와 ‘제사하는’자유를 둘러싸고－] 『嶺南法學』 第29號, 2009년11월

‘우리에게 야스쿠니는 무엇인가’[질문하는 한국사]2008년4월

[옥중19년](역사비평사 1999년)

‘대통령 방일에 즈음하여’ 한겨레신문(2002. 6. 2. 특별기고)

‘비정상국가 일본을 똑 바로 대하자’ “월간 우리” 2003년 5월호